

축구

6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황선홍 감독

1부 승격·명예회복 대전의 '두 가지 꿈'

대대적인 선수 교체·빅네임 영입
황선홍 감독 "원팀 프로젝트 시작"

'축구특별시'는 부활할 수 있을까. K리그2 대전은 새 시즌을 앞두고 큰 변화를 꾀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인수와 함께 시민구단(대전 시티즌)에서 기업구단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다시 창단됐다.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각종 구설이 익숙했던 대전은 서글픈 과거가 아닌, 희망의 내일을 그려가고 있다.

대전의 목표는 뚜렷하다. 재창단 첫 시즌, K리그1 복귀다. '큰 물'을 경험한 제주 유나이티드와 경남FC, 전남 드래곤즈 등과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고됐지만 위상 회복을 꿈꾸는 대전은 자신만만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로 지난시즌까지 활동한 대전 허정무 이사장은 "알찬 보강이 이뤄졌다. K리그2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했다.

실제로 대전은 대단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선수단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됐다. 지난해 42명 중 23명이 아웃됐고, 스페인 발렌시아로 동계전지훈련을 떠난 14일 기준으로 대전은 11명을 수혈했다. 현재 선수 숫자는 29명이지만 2월 말까지 30명 초반으로 늘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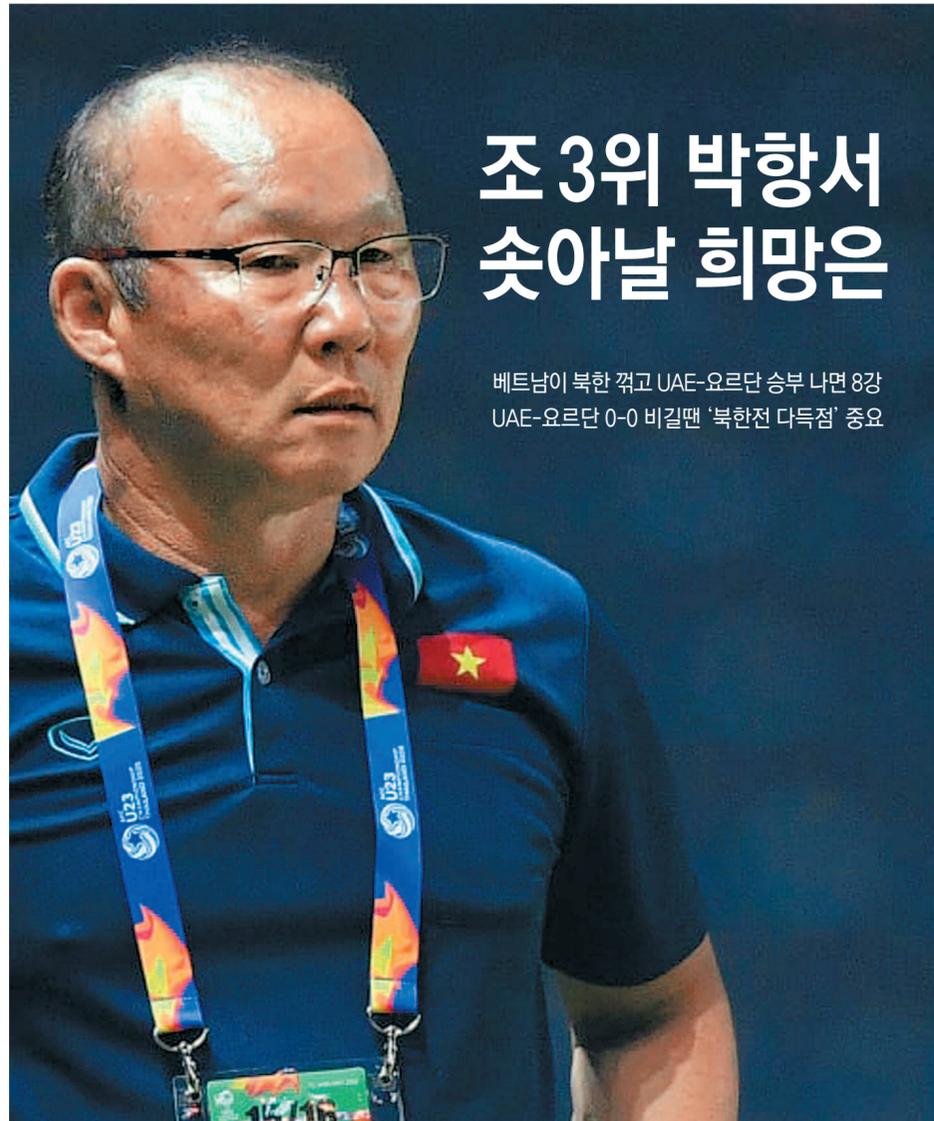
시민구단 해산·기업구단 창단 절차가 맞물려 선수 영입경쟁에 늦게 뛰어든 탓에도 누구나 아는 빅네임들이 여럿 있다. K리그1 성남FC에서 뛰던 국가대표급 수문장 김동준과 베테랑 미드필더 조재철이 합류했다. 특히 김동준은 K리그의 모든 구단들이 탐낸 특급 골키퍼로 10억 원 이상 이적료가 투입됐다.

대전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도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으려 한다. 2013년 국내 최초로 포항 스틸러스의 2관왕(K리그·FA컵)을 일군 지도자임에도 최근 행적은 아쉬움이 짙었다. 새 시즌을 맞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팀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최우선이다. 우리의 목표인 승격을 향해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은 유럽 클럽들과의 스파리 매치 업 시리즈를 포함한 발렌시아 훈련캠프를 6일까지 진행한 뒤 다음달 경남 남해에서 2차 전지를 갖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박항서의 베트남, U-23 챔피언십 2경기 연속 무득점·무승부



조 3위 박항서 숫아날 희망은

베트남이 북한 꺾고 UAE-요르단 승부 나면 8강
UAE-요르단 0-0 비길땐 '북한전 다득점' 중요

'박항서 매직'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는 주춤하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은 두 경기 연속 0-0 무승부를 기록해 탈락 위기를 맞이했다. 13일 태국 부리람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차전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박 감독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사진출처 | AFC 홈페이지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3일(한국시간) 태국 부리람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요르단과 득점 없이 비겼다. 1차전 아랍에미리트(UAE)전에 이은 2경기 연속 0-0 무승부다. 이로써 베트남은 승점2를 기록해 조 3위에 머물렀다. 승점4(1승1무)로 동점이지만 골 득실에서 앞선 UAE(+2)가 1위, 요르단(+1)이 2위다.

16팀이 출전해 4개조로 나뉜 이번 대회는 각 조 2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8강행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일단 16일 열리는 북한과 최종전을 이겨야 한다. 지거나 비기면 무조건 탈락이다. 북한은 2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됐다. 동기부여가 사라졌다는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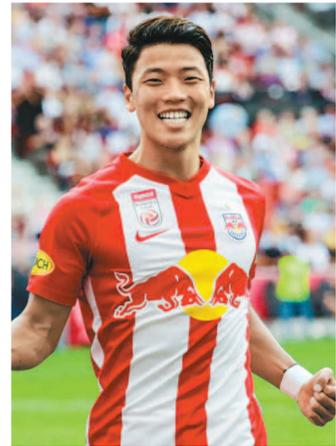
서 베트남이 유리하다. 베트남이 이기면 승점5가 된다. 같은 시간 벌어지는 UAE-요르단전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데, 누가 이기든 승부가 나면 베트남은 조 2위로 8강에 오른다. 이 경우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C조의 한국과 8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3차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비기기만해도 조 1위가 돼 D조 2위와 4강 진출을 다룬다.

문제는 UAE와 요르단이 비겨 3팀이 1승2무로 동률이 되는 경우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두 개 이상 팀의 승점이 같을 경우 먼저 해당 팀간 조별리그 승점~골 득실~다 득점을 따진다. 북한과의 전적이 제외되면 3팀은 모두 2무승부로 승점과 골 득실이 같게 된다. 만약, UAE와 요르단이 골을 넣고 비기면 베트남은 다 득점에서 밀려

3위로 8강행이 좌절된다. UAE와 요르단이 0-0으로 비기면 조별리그 전체 성적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이 경우 골 득실차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베트남은 북한을 상대로 2골 이상을 넣고 이겨야 조 2위 이상의 성적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2018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박항서 매직'의 시작이었다. 2년 만에 다시 출전한 이번엔 올림픽 출전 티켓을 노린다. 2020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 3장의 티켓이 걸려있다. 하지만 그 매직이 불안하다. 특히 연속 무득점을 기록한 공격력은 답답한 수준이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한 박항서 감독의 마법이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된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황희찬

에버턴·브라이턴도 관심 설설 끊는 황희찬 이적설

잘츠부르크 연장 계약 제시 소식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턴행이 유력했던 황희찬(24·잘츠부르크)의 이적이 최종적으로 결론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이적설이 탄생하고 있다. 황희찬을 눈여겨보는 구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14일(한국시간) "황희찬 영입에 에버턴과 브라이턴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명문 구단 올림피크 리옹도 황희찬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입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희찬은 유럽축구 겨울이적시장이 열리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연말 울버햄턴의 이적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영국 언론들은 울버햄턴과 잘츠부르크가 일정 수준의 이적료에 합의를 했다는 보도까지 쏟아냈다. 하지만 잘츠부르크 구단 고위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즌 내에 황희찬을 이적시킬 계획이 없다. 그는 시즌 종료까지 팀과 함께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적설이 잦아 들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이적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자 다시 황희찬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구단들이 나오고 있다. 황희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그만큼 좋다는 걸 의미한다. 잘츠부르크와의 계약이 남아있어 그가 이적을 하려면 팀과의 합의는 필수다. 핵심 공격수 중 미나미노 타카미를 리버풀, 엘링 홀란드를 도르트문트(독일)로 떠나보낸 잘츠부르크가 황희찬을 당장 이적시킬 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 이적시장에서는 오스트리아를 떠날 확률이 크진 않아 보인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잘츠부르크가 황희찬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잘츠부르크는 겨울휴식기 훈련을 시작했다. 1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단기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는 다음달 15일 재개된다. 하지만 잘츠부르크는 이보다 앞선 10일 컵 대회 8강전을 시작으로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최현석 기자 ghyong@donga.com

K리그 빅이슈, 강원 '병수볼'의 핵심은 '볼 소유·짧은 패스'

프로축구연맹 '테크니컬 리포트' 발간

볼 점유율 58% 1부 리그 팀들 최고 경기당 572회 패스·81% 성공률 1위 패스 길이는 평균 18.4m 가장 짧아

2019시즌 K리그1(1부) 강원FC의 최종 순위는 6위였다. 이는 상위그룹이 속한 파이널라운드A에서는 최하위다. 빼어나지도, 그렇다고 못한 것도 아닌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다. 그런데도 강원은 시즌 내내 이슈를 몰고 다녔다. '병수볼' 덕분이다.

'병수볼'은 김병수 강원 감독 특유의 축구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정의는 대부분 공격적이고, 빠른 플레이를 가리킨

다. 하지만 김 감독은 수비에 방점을 찍었다. 강등되지 않기 위해 '선 수비, 후 역습' 패턴을 선택한 게 강원 색깔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과연 병수볼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실체를 밝혀줄 실마리가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간한 '2019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에 따르면, 병수볼의 요체는 볼 소유와 패스였다. 연맹 경기위원회는 "강원 선수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간결한 패스를 통해 공격 작업을 펼치는 것에 능하다"고 평가했다.

강원은 볼 점유율 58%로 1부에서 최고였다. 우승팀 전북 현대는 55%다. 볼을 갖고 플레이를 한 시간은 평균 32분57초인데, 이 역시 1위다. 그만큼 강원의 볼 소유는 인상적이었다.

1부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한 팀도

강원이다. 경기당 572회다. 전방으로 향하는 공격 패스 성공률도 81%로 1위다. 유일하게 80%대의 정확성을 자랑했다. 분당 패스에서 14.8개로 포항(14.9개)에 이어 2위다. 선수 개인별 능력도 탁월했다. 팀 내 패스 1위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총 2822회)이고, 2위는 수비수 신광훈(2156회)이다. 이들의 패스 성공률은 각각 92%, 86%인데, 1부를 통틀어도 1위와 3위다.

대신 패스 길이는 평균 18.4m로 12팀 중 가장 짧았다. 단거리 패스(139회), 중거리 패스(401회) 시도 횟수는 가장 많았고, 장거리 패스 시도 횟수(32회)는 리그 평균(33회)보다 적었다. 이는 짧은 패스 위주로 전 영역에 걸쳐 점유율을 높이는 스타일이었음을 의미한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강원FC는 김병수 감독(사진)만의 독특한 전술 컬러를 일컫는 '병수볼'로 지난 시즌 내내 큰 관심을 끌었다. 높은 볼 점유율과 간결하고 빠른 패스를 통한 역습 플레이가 지금의 '매력적인' 강원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